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임]

- 오늘은 온 가족 한 마음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시 애찬식이 있습니다.
- 수요 저녁 7시, 온라인으로 기도합니다(예배 영상 업로드).
- 청소년부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 오늘 예배 후 하반기 연합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김준희, 권용미 집사).

[알림]

- 공동체 성경읽기 365 플랜 제 40 주 차
- 9월 가정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프린트물, 교회 홈페이지).
- 추석(9.29) 가정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교회 한글 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 10월 8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온 가족 한 마음 예배로 드립니다.
- 교회 도서관을 위한 도서 기증 및 후원을 받습니다(성경, 신앙서적 등).

[담임목사 동정]

- 미주 남침례 한인교회 캐나다 지방회 총회 참석, 밴쿠버 한인침례교회, 25일-27일

[모라비안 교회 동정]

- 10월 1일(주), Pastor Mark 담임목사 취임예배

[중보기도(기도제목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몸의 회복을 위해 : 김정현, 김현희, 장문수(장은정), 장정윤, 장민음 어린이
- 9월의 기도제목을 위해
-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위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모로코를 위해, 홍수 피해를 입은 리비아를 위해

9월 기도제목

- ◆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의 영적, 질적, 수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 ◆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위해
- ◆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삶과 가정과 교회에 회복되기를 위해
- ◆ 자녀들의 신앙, 인격, 건강, 학업, 만남, 비전을 위해
- ◆ 장중섭 교육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위해
- ◆ 김창섭, 양영창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가정과 자녀를 위해
- ◆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
- ◆ 9월의 목회일정(주일예배, 수요기도회, 성경 아카데미, 리더 양육, 목자 교육, 목장 모임, 문화사역)을 위해

모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 Zoom
어린이예배	오후 2시	소예배실
청소년모임	오후 1시	청소년부실
수요기도회	저녁 7시	본당 / Zoom
성경아카데미	해당 요일에	교회 / Zoom
목장모임	목장 A	지정 시간 / 장소
	목장 B	지정 시간 / 장소

10월 목회계획 (감사의 달)

8일	추수감사주일(온 가족 한 마음 예배)
31일	홀리 윈 데이 Holy Win Day
	목적이 이끄는 삶, 예수님의 사람, 목자 교육, 목장 모임, 문화 사역

10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친교
24일	권용미	김현희	여선교회
1일	류성주	오세봉	김성실
8일	김성실	전남형	추수감사절
15일	김현희	김재연	여선교회
22일	김영순	장문수	류성주
29일	임혜영	김준희	김안나

지난 주 헌금 통계

(E-transfer: edmkbc@gmail.com)

항목	통계
십일조	600.00
감사헌금	0.00
주정헌금	500.00
선교헌금	0.00
기타헌금	0.00
계	1,100.00

셈기는 이

담임목사 : 권성범
반 주 : 김안나
방송담당 : 김태빈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망을 두고 돌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하네시옵소서 이는 중매라도 공물을 함께 마옵소서 (왕 3:2)

2시

*경배와 찬양	43.주께와 엮드려 경배드립니다 41.은혜로만 들어가네 45.주 품에 품으소서 23. 임재	다같이
*예배의 부름	시 147:1	인도자
*찬송	135. 어제께나 오늘이나	다같이
대표기도		권용미 집사
성경봉독	출 3:1-10	김현희 집사
말씀선포	믿음의 세대로 키우십시오	권성범 목사
애찬식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주기도송		다같이
*축도		권성범 목사

*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신학사색

성만찬의 성경적 기원

흔히 성찬(The Lord's Supper 또는 The Eucharist)이라고 부르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친히 제정하신 성례다(마 26:26~30, 막 14:22~26, 눅 22:17~20). “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 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성만찬 예식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사도 바울 역시 고전 11:20~34 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것을 “행하라(24, 25 절)”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주의 재림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24~26 절).

애찬과 성만찬

신도 수가 적었던 초대교회 초기에 행해지던 성만찬은 저녁 때에 가졌는데, 애찬(Agape, The Love Feast)이라고 부르는 친교 식사 형식으로 행해졌다. 각자의 집에서 공동식사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 오고 성도들이 사랑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다(고전 11:21).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비해 온 음식의 수준이 달라 가난한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교회를 배부르게 먹고 취하는 곳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나타나자 사도 바울은 이를 경계하고 식사는 각자의 집에서 하도록 권면하였다(22 절).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 150 년 경에는 애찬과 성만찬이 분리되어 성만찬을 먼저 행하고 애찬을 나누었으나, 그 뒤로 차츰 성만찬과 애찬의 시간을 분리해서 성찬은 아침에 행하고 애찬은 저녁에 나누었다. 그러나 4 세기 말경부터는 교회에서 성만찬만 행하고, 애찬은 각 가정에서 사사로이 행하다가 차츰 애찬의 풍습이 사라졌다.

떡과 잔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실재설: 성만찬의 요소들인 떡과 잔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The Gnosticism)는 그리스도의 성육신(The incarnation)을 부정하며 가현설(Docetism;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을 뿐이라는 의견)을 주장하는데 성만찬의 떡과 잔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라고 한다. 초대교회 최대의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영이라고 정죄하였다(요일 4:1~3).

화체설: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견해가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이다. 중세 기독교의 제 4 차 라테란회의 (The Fourth Lateran Council, 1215)에서 화체설이 천주교의 공식 교리로 채택되었다. 천주교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고 말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속죄 희생의 제사(히 9:26)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사제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성별시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만찬의 두 요소 즉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면 그 변화의 기간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남긴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면 “피를 멀리하라”(행 15:29)는 예루살렘공의회 결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게 된다는 주장은 요한복음 6 장의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재설: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가 공재설(Consubstantiation)을 주장한다(칼빈은 실재설을 주장함). 루터에 따르면, 영화(spiritualization)된 그리스도의 몸은 또 다른 물질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함께 존재한다. 이는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편재(아니 계산 곳이 없다)하신다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떡과 포도주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존재하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 요소들 속에 (in), 그 요소들 밑에(under), 그 요소들과 함께(with the elements)임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이 내 피니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의 요소와 함께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의 공재설이 갖는 문제점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된 인성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하는 이론적인 모순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화된 몸이 어디나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보통 음식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임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과, 성만찬의 떡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떡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정도 함께 하는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기념설: 스위스의 개혁자인 쾰빙글리 (Zwingli, 1484~1531)는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성찬의 떡이나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쾰빙글리는 성만찬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며 회상하는 기념이라고 주장한다. 성만찬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쾰빙글리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마 26:26)하신 ‘이니라’라는 말이 ‘의미하다’의 뜻을 밝히며 ‘이니라’의 라틴어인 est 가 ‘표시하다’ 또는 ‘상징하다’라는 뜻의 significatio 와 같다고 해석한다. 쾰빙글리의 성만찬 이론을 기념설 또는 상징설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 있다.

성만찬의 떡을 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몸을 찢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며, 잔을 나눌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한다.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의식이 성만찬이라는 것이다.

쾰빙글리는 육체적 임재 대신 영적 임재를 주장하나 성만찬의 교리로부터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떡과 포도주를 상징 또는 기념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띤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외 교제 (communion)는 신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며 구속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드려 거룩한 교제(holy communion)에 이르게 된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긴밀한 교제 뿐만 아니라 신자 상호간의 연합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 몸을 주심같이 구원받은 신자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몸을 바쳐 봉사하고 헌신하는 다짐을 하게 한다.

성경 퀴즈

[성경: 이사야 9:1 - 26:21] 날짜: 이름:

▣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1.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할 것이라 하였나요? (사 9:)

2.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누가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했나요? (사 11:)

3. “너희는 무엇이 가까웠으니 애곡할지어다”고 했나요? (사 13:)

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이 반드시 되며 나의 ()이 반드시 이루리라” (사 14:)

5.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무엇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무엇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고 했나요? (사 16:)

6.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무엇이라 칭하리라”고 했나요? (사 19:)

7. 이사야는 3 년동안 어떻게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었나요? (사 20:)

8. “내가 또 무엇을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달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했나요? (사 22:)

9. 그 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누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인가요? (사 24:)

10. 주께서 어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나요? (사 26:)